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궁전 벽화에 나타난 삼국시대복식연구

이 상 은 · 김 애 련⁺*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Dress of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From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s Palace in Samarkand

Sang-Eun Lee · Ae-Ryeon Kim⁺*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6. 7. 4. 접수; 9. 1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nationality of two envoys by examining their dresses and appearances depicted on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s Palace in Samarkand with the concentration on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ree states and the countries in Central Asia.

The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ree states and the countries in Central Asia are examined with the concentration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what are related to the dresses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re examined with the concentration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wall painting of Goguryeo tomb.

The followings results were identified.

The dresses of envoys were comprised of Jowugwan, the soft hat shaped like a peaked hat, the upper garment reaching a hip line with Jikryeong Gyoim and Tongsu, narrow trousers, black belt with a hook, front-pointed shoes and big sword with a round ring. The items of dressing are very similar to those during the Goguryeo period as observed on the wall paintings and excavated articles from the tombs from the Goguryeo period and literature.

The next examination is estimated that Goguryeo had the official relationship with the countries in Central Asia before the invasion of Tang in mid-7 century when the wall painting, in our estimation, was produced, and to this end, Goguryeo sent the envoys to those countries. The envoys on the wall painting were estimated to be from Goguryeo as discussed above.

Key Words: Afrasiab's Wall Painting(아프라시압 벽화), Envoy(사신), nationality(국적),
the Dress of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삼국시대복식), Central Asia(중앙아시아)

*Corresponding author ; Ae-Ryeon Kim

Tel. +82-17-228-6402, Fax. +82-2-553-2566

E-mail : aeryeon1@hanmail.net

I. 서론

인류사회는 지리적인 이유로 외부세계와 고립되거나 차단되지 않는 한, 우위에 있는 문화는 무역품, 상업정책, 정치적 조작 등을 매개로 타문화와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타문화가 첨가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큰 힘을 갖게 된다¹⁾. 이러한 문화간 접촉은 타문화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구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상황, 경제적 필요성 등으로 인류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65년 우즈베크공화국의 사마르칸트(Samarkand) 아프라시아(Afrasiab)에서 궁전벽화가 발굴되었는데 서쪽 벽화에는 와르흐만(Varhuman) 왕을 영접하는 12인의 사신행렬도가 채색되어 있었다. 이 사신도의 아래쪽 끝에서 있는 2인상의 외모와 복식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발굴자인 알리바움(Alibaum)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벽화 제작년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사신의 국적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가 최근 정수일²⁾은 벽화의 제작년도가 A.D 650-A.D 655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인류문화의 교류사에서 요충지 역할을 해 왔으며, 사마르칸트는 과거 실크로드 교역지로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의 제 2의 도시이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라는 지역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서역(西域)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와 문물의 교류는 가공, 융화, 재생산, 파생 과정을 통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프라시아 벽화의 제작년도로 추정되는 시기까지 신라와 백제는 서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사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고구려는 A.D 4세기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이나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A.D 5세기부터 A.D 6세기 중엽까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고서 국제적 위상이 확고하였다. 이러한 위세로 고구려 사절단이 A.D 7세기에는 멀리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지역까지 미칠 정도로³⁾ 타민족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였다.

복식은 착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착용자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성별, 종교, 심미관, 정서 등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측면까지 반영하므로 복식과 외모는 착용자의 국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역사학이나 의류학 분야의 대다수 학자들도 벽화사절들의 복식을 근거로 국적을 추정하거나 단언하였으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간의 정치적 정황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긴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들이 고구려 사절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아프라시아궁전 벽화의 사절단이 고구려인일 가능성은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가능성이 크지만, 벽화의 기록에서 고구려인 사절이라고 밝힌 사료는 없으므로 벽화사절의 국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는 역사적 추이에 치중하는 듯 하며, 의류학에서는 논문의 일부분으로만 간략하게 사절의 복식에 관해서 언급된 정도이며 사절의 국적에 관한 견해가 분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벽화에 등장한 두 사신의 복식과 외모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당시의 삼국과 서역 간의 역사적인 정황과 교류사를 중심으로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궁전 벽화에 나타난 두 사절의 복식과 외모를 고찰하여 사신의 국적을 추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삼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류사를 고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저서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을 알아 본 후, 삼국시대 복식관련 자료인 고기록, 고분벽화 및 출토품, 사신도에 관한 문헌자료와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묘사된 사절복식을 분석하여 그들의 국적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 삼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에 관한 고찰

1.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배경과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궁전 벽화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는 타슈켄트(Tashkent)이고, 주요 도시로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망간 등이 있다.

과거 우즈벡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B.C 6세기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영토였다가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후, 545년에 돌궐제국이 건설되었다. 돌궐제국은 초기 투르크족으로 터키공화국의 시발점이 되며 수나라와의 충돌에서 패배하고 당나라에게 반세기 동안 지배를 받게 된다. A.D 8세기 아랍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입하면서 이슬람교의 중심지가 되어 동서무역의 중계역할로 번성하였으나, 1243년 징키스칸의 몽골에 의해 중앙아시아는 패망하였다. 1369년 티무르는 사마르칸트에 도읍을 정하고 티무르제국을 건설한 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투르크-이슬람 문명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티무르제국에서부터 비로소 우즈벡이라는 민족명과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55년 크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코칸트(1875), 부하라(1873), 히바(1873) 등의 소공화국을 정복하여 오랜 기간 종교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하였으나,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각 공화국들이 주권선언 및 독립선언을 하여 1991년 12월 13일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⁶⁾.

사마르칸트는 古代 소그드인에 의해 건설되었던 소그디아나(Sogdiana)의 도시국가였으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인 2500년 된 오아시스의 고도로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의 제 2의 도시이다⁷⁾.

1965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에서 A.D 7세기 말-A.D 8세기 초기 동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궁전이 발굴되었는데 아랍인이 이 지역

을 정복하기 전 현지인이었던 소그디아나 왕의 궁전이었다. 아랍 초기 소그디아나 문학과 민속사의 자료에 의하면, 불의 신전이 있던 궁전은 여러 번 재건되었으며 A.D 8세기 아랍정복이 있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재건되었으나, 결국 “흰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의 폭동이었던 Mukana 폭동을 진압하던 중이었던 770년대에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

아프라시아 궁전은 중세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뒷면에는 세 개의 벽이 있고 면적은 1헥타르 이상이다. 왕이 있던 홀(hall)은 눈에 띄는 채색그림으로 장식되었는데 소그드인(Sogdian)이 벽화를 그리는 기법은 등장인물의 얼굴과 손, 특히 옷을 세밀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이 벽화그림은 중세 중앙아시아 예술의 가장 우수한 표본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 사마르칸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벽화는 A.D 8세기 초 사마르칸트를 침공한 아랍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바닥에서 2m 정도만 남아 있으며 인물들의 얼굴은 손상되어 있다. 전시실의 남벽은 결혼식 행렬도가 그려져 있는데 하얀색 코끼리 위에 앉아있는 신부가 결혼행렬의 맨 앞에 있으며, 낙타와 말 위에 앉은 신부의 여자 친구들과 고관들이 신부를 뒤따른다. 북벽에는 강둑을 뛰어 달리고 있는 전쟁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기수들은 보트에 앉아 있는 남녀 앞의 야생동물과 싸우고 있다. 동벽을 보면, 문에서부터 좌측으로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 새, 동물들이 그려져 있으며 우측으로는 힌두교도(인도인)가 보인다⁹⁾.

왕좌(옥좌) 뒤에 있는 서벽에는 외국 사절단을 응접하는 장면이 있다. 가운데는 중국사신이 위치해 있으며 왼쪽에는 차가니아(Chaganian, 우즈베키스탄 남쪽) 사신이 있고 오른쪽에는 Chach(타시켄트)와 동투르크스탄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동투르크스탄은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의 자치구에 위치해 있었다. 와르흐만(Varhunan) 왕 바로 앞자리이자 사절단 중 한 가운데에 중국 사절을 배치한 구도는 당시 소그디아나와 신속(臣屬)관계에 있었던 당나라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행렬 마지막에 서 있는

두 사람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봤을 때 그들은 한반도 사절이며, 이 사신 행렬도가 당시 한반도와 서역 간의 공식관계를 시사해 준다는 점에 관해서는 국내외 학계가 견해를 같이 한다. 발굴보고서에는 이 벽화의 제작년도가 712년 아랍군의 침입이전이며, 소그드어로 궁전 벽에 쓰여진 銘文 중의 와르흐만(Barhuman)이라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⁸⁾, 발굴자인 알리바움(Alibaum)은 두 명의 사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혔다⁹⁾.

보고서 내용으로 인해서 벽화의 제작년도가 A.D 7세기 후반에서 A.D 8세기 초반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서 벽화의 한국인 사절단의 국적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발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와르흐만 왕이 당의 永徽年間(A.D 650-A.D 655)에 康居都督(都督: 중국에서 외지를 점령한 후 외지를 다스리게 한 관직)으로 책봉되어진 拂呼纒과 동일인으로 여겨진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절단 방문 시기는 그의 재위시기(A.D 650-A.D 655)인 A.D 7세기 중엽으로 보면서 벽화의 2인이 고구려인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¹⁰⁾¹¹⁾¹²⁾¹³⁾¹⁴⁾. 아프리카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현재 사마르칸트 고고학 연구소 소장이자 박물관장인 압둘 하미드씨는 첫 정식 발굴보고서인 “아프리카인 벽화”(1975)의 저자 알리바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원룡¹⁵⁾은 신라의 하급관리로 추정하면서 논문 후기에 발해인일 가능성과 벽화제작년대가 A.D 7세기 중엽이라면 신라인보다는 고구려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한편 벽화사신이 아닌 模寫圖를 참조한 의류학자들은 복식에 대한 해석과 사절의 국적에 관한 추정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논제가 지속되다가 2005년 정수일¹⁶⁾은 벽화의 제작년도가 A.D 650-A.D 655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어 벽화의 제작년도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벽화의 제작년도를 A.D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던 것에서 A.D 7세기 중엽으로 수정된 査實은 벽화사신의 국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벽화와 함께 당시 삼국과 서역제국 간의 교류사를 살펴보면 벽화사절의 국적을 더욱 설득력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삼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사

삼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알아본 후 삼국 간, 삼국과 주변국가들 및 서역의 정치적 정황에 따른 역학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문화는 타율성과 자율성, 그리고 복합성과 독자성이라는 양면성으로 인해서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며, 한 사회의 문화는 타문화와의 상호연관 속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⁷⁾.

서역(西域)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범주를 한정짓는 고유 명칭이다. 서역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 B.C 140-B.C 87) 때에 있는 장건(張騫)의 서역사행(西域使行) 후에 사마천(司馬遷)이 편찬한 『史記 大宛列傳』에 “비로서 漢이 ‘西北國’ 혹은 ‘外國’과 始通하게 되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북국’ 혹은 ‘외국’이 바로 이후의 서역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前漢書 西域傳』에는 서역에 관해서 “古音國讀如域...中國之西故曰西域” 이라고 하여 “古語로 ‘國’과 ‘域’이 동음자이며...중국의 서쪽에 접하고 있어 서역이라 한다” 라고 서역이란 단어의 어원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역의 범주는 중국 신강성 타림분지(동투르키스탄)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도 구소련, 중앙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서투르키스탄 일부도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서역을 중앙아시아라는 명칭으로 대체하고 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는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접경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민족, 문화, 언어, 관습, 전통 등의 공통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공유하면서 이들은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된다. 중세 海路를 통한 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 서역은 동서문화 교류의 대동맥인 실크로드(오아시스로)의 중추일 뿐 아

나라 북부 스텝(초원길)를 동서로 연결하는 동서문물의 집합지였다. 또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슬람교 등 서방종교가 동방에 전해졌으며 불교나 서남아시아 문물도 이 곳을 통하여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정복인 알렉산더 대왕의 東征, 이슬람 대군의 동진, 몽고의 西征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서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나 문물의 교류는 변화, 융화, 재생산의 과정을 통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문헌을 중심으로 삼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고구려와 서역 간의 최초의 교류는 A.D 5세기 장수왕 19년(427)에 환도(丸都)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후 북방수비를 위해 북위(北魏)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隋書』에는 “自後魏平馮氏及通西域 因得其伎後漸繁 會其聲以別於大樂”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A.D 436년에 “요서(遼西)의 北燕皇帝 풍씨(馮氏)를 멸하고 後魏와 수교하므로서 처음으로 서역과 통하여 낙기(樂伎)를 구득하였다” 는 것이다. 여기서 후위는 북위를 이르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북위와 적대관계에 있던 남조를 포섭하고 북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방의 유연(柔然)과는 화친정책으로 일관하는 능숙한 외교정책을 펼쳤으며, 남조 또한 북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고구려 사신들을 우대하였다.

고구려는 A.D 5세기 초에서 A.D 6세기 중엽까지 150여년간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군림하였으나 A.D 6세기 중엽부터 대외정세는 급변하였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다¹⁸⁾¹⁹⁾²⁰⁾. 552년 초엽 돌궐이 우호적인 유연을 격파하고 몽고고원의 패자로 등장하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돌궐과 상호교섭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외몽고 오르콘강 기슭의 호쇼·취이담(Khosho-Tsaidam)에 있는 고돌궐 비문에 돌궐제국의 시조인 Bunin과 Istami의 葬儀에 조문사를 보낸 나라들을 기술하는 내용에서 Bökli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前(東)으로 해뜨는 곳에서 Bökli” 가 왔

다고 하였으며, 돌궐이 쇠퇴해져 중국에 복속하게 되어 “前으로 해뜨는 곳의 Bökli可汗에 까지 출정하였다” 고 하였다. 여기서 Bökli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說이 옳으며,古터키어에서 B음과 M음은 환치됨으로 Bökli=Mökli=貂句麗로 보거나, Bök-eli= Mök-eli=貂國으로 본다. 또한 당의 고구려 원정에 돌궐 장수들이 從征한 史實에서 고구려를 이르는게 분명하다²¹⁾.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수일²²⁾은 고구려가 돌궐이 흥기할 때부터 동북아시아에 전개될 국제질서의 판도를 예단하고 북방세력과 제휴하기 위한 거시적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A.D 6세기 말-A.D 7세기 초에 활약하였던 동로마의 史家 Theophract Simocatta가 남긴 기록을 보면, 돌궐에 격파된 유연의 일부가 북제로 달아났으나 그 곳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북제의 공격을 받아 동쪽인 Mökri로 쫓겨 갔다고 하면서 “이 Mökri는 중국 북제에 인접해 있다. Mökri인들은 위협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매일 매일의 신체 단련으로 그들의 투지는 매우 높았다” 고 쓰여져 있다. 여기에서 Mökri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A.D 5세기부터 고구려가 돌궐과 교섭이 시작되어 550년 초엽부터 상호교섭을 가졌으며 무력대결을 펼쳤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³⁾.

한편, 고구려의 돌궐세력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한반도 내의 역학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589년 나제동맹을 체결한 신라 진흥왕의 북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 및 함경도 일대를 상실하게 된다. 이후 고구려 영양왕(擎陽王)은 남하정책을 포기하고 서진정책(西進政策)을 단행하여 요서(遼西) 지방을 공격함으로써 위(魏), 진(晉),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한 수나라와 충돌하여 요동(遼東)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598년(영양왕 9) 수나라 문제(文帝)는 고구려를 침공하여 퇴각당했으며, 당시 고구려와 돌궐은 隋帝國의 팽창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동맹을 추구하면서 양국 간에 대규모의 교역도 행하여 졌다. 605년 수나라 장군이 거란을 공격하기 위하여 당시 수에 복속

되어 있던 돌궐의 啓民可汗(계민칸) 휘하의 이 만기를 동원하여 돌궐병을 요서지방인 柳城으로 보냈다. 이때 돌궐병은 고구려와 교역하러가는 商團으로 위장하여 거란을 속인 후 대과한 사건에서 고구려와 돌궐 간에 교역이 상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데²⁴⁾ 이때 유성은 당시 유목민 및 동북아시아 나라 간 교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수의 세력 하에 있던 돌궐과 동맹을 맺으려는 고구려의 노력은 큰 효과는 없었지만 수와 대항하기 위한 내륙아시아 국가와의 동맹을 위한 정책은 지속되었다.

이후 돌궐족을 복속시킨 수나라 양제(煬帝)도 고구려를 두 번씩이나 침입하였으나 대패하였다. 『삼국사기』 高句麗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十八年初煬帝之幸啓民帳也 我使者在啓民所...高句麗本箕子所封之地...今其使者親見啓民舉國從化 可因其恐懼..” 이 내용은 고구려 영양왕 18년(607)에 고구려 사신이 오르도스 지방에 있던 돌궐의 추장 啓民可汗의 장막(帳幕)으로 파견되어 함께 수에 대항하려던 사실이 마침 그 곳을 친방하고 있던 수양제(隨煬帝)에게 감지되어 경고를 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隋書』에도 “從帝巡于塞北幸啓民帳時 高麗遣使先通于突厥啓民敢隱引之見帝” 라고 하여 양제가 塞北 啓民帳(계민의 막장)을 순방할 때 계민은 한 발 앞서 돌궐에 온 고구려 사신이 양제를 만나는 것을 내심 꺼려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한편, 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고구려로 돌아가 왕에게 親朝의 예를 지키지 않으면 돌궐 왕인 계민과 함께 고구려를 칠 것을 전하라고 위협했지만 고구려는 굴하지 않고 무언으로 입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²⁵⁾.

618년 당(唐)나라가 건국되어 돌궐을 복속시키고 서역(西域)을 평정하였으며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 있던 거란족을 피어 고구려를 배반하게 하는 등 침공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립하고 돌궐 등과는 화친정책을 펼치며 내왕하면서 642년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때 연개소문은 돌궐 대신 일시적으로 몽고고원의 패자로 등장한 설연타(薛延陀)에게 사절을 보내어 동맹을 맺은 결과, 설연타는 당의 夏州를 공

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이후로도 내륙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섭을 추구하여 당을 다른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1965년 발굴된 아프리카시압궁전 벽화가 있다. 벽화에 보이는 두 명의 사절의 모습을 보고 몇몇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가 유연, 돌궐, 설연타 등과의 오랜 교섭의 경험으로 중앙아시아까지 교류가 가능하였을 것이며 두 명의 사절은 A.D 7세기 후반 대 당전쟁의 절박한 상황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돌궐을 비롯한 서역계국과 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초원길을 따라 사신을 그 곳으로 파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²⁶⁾²⁷⁾²⁸⁾²⁹⁾³⁰⁾

한편 고구려와 백제의 양면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는 당과 군사동맹을 맺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게 되었다. 645년(보장왕 4) 당 태종에 의한 고구려 침공을 시작으로 산발적인 공격이 계속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피폐해져 나당연합군에 의해 668년 멸망하였으며, 백제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660년 멸망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내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추구하던 고구려의 외교적 노력의 일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고구려와 서역간의 이러한 교류는 북방의 여러 나라와 함께 중국 측 세력을 포위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서역의 특이한 문물을 수입하기 위한 욕구 때문이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일찍부터 국제성을 띤 고구려의 위상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아프리카시압벽화의 제작년도인 A.D 7세기 중엽까지 신라와 백제가 서역과 교섭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가 빈번했었던 사실은 삼국간, 삼국과 중국 및 서역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III.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압궁전 벽화에 나타난 삼국복식

아프리카시압벽화 사신의 국적을 추정하는데 있어 삼국과 서역간의 사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들이 착용했던 복식과 외모이다. 복식은 개인 및 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므로 벽화제작 시기를 전후한 삼국의 복식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 논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대 우리나라 의복의 기본구조는 衣袴 분할 형태로서 이는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전체가 마찬가지이며, 우리복식의 원류는 북방 胡服 계통의 의복이다. 『舊唐書』東夷傳에는 “衣裳服飾...白羅爲冠 白皮小帶...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韋履”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복식의 기본구조가 “의상복식...백색 라로 만든 관모, 백색 가죽의 얇은 허리띠...청색 라로 만든 관모와 붉은색 라로 만든 관모에 두 개의 새 깃털을 삽입하고...筒袖의 상의와 통넓은 바지, 백색 가죽의 허리띠와 황색 가죽으로 된 신목이 낮은 履” 라는 것이다. 구당서에서는 우리의 기본복식으로 상의(衫), 바지(袴), 관모, 신(履), 허리띠(帶)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벽화사신들의 복식을 관모, 상의, 하의, 허리띠, 신, 겹으로 구분하여 고기록, 고분벽화와 출토품, 사신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아프리카시압궁전 벽화에 나타난 사신들의 복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관모(冠帽)

어느 민족이건 두식의 발전은 巾-帽-冠으로 진행된다. 고구려는 초기 관직자도 높은 신분은 幘을 사용하고 낮은 신분에서는 절풍을 착용하였는데, 이후 유관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모도 절풍으로 통일되었으며 이는 가장 고구려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다. 절풍은 변형모(弁形帽)로 초기에는 장식 없이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천연 새깃털을 꽂아 귀친을 가렸고 使人은 鳥羽 두개를 꽂아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변형모인 절풍은 특수계급의 모자가 아니었으나, A.D 6세기 이후부터 紫羅를 사용하여 소골(蘇骨)이라고 하였으며 높은 신분은 금은조우로 장식하다가 白, 靑, 絳色の 羅직물도 신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고기록, 고분벽화와 출토품, 사신도에 나타난 조우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鳥羽冠에 관한 고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관련 기록인 『魏書 列傳 高句麗條』에는 “頭者折風 其形如弁 插鳥羽 貴賤有差”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머리에 쓴 절풍은 고깔형태와 같고 새깃털을 꽂아 귀친의 차이를 두었다는 뜻이다. 『隋書 列傳 東夷傳 高麗條』에는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라고 하여 사람들은 모두 가죽으로 된 관모를 착용했으며 使人은 조우를 삽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北史 列傳 高麗條』에도 “人皆頭簪折風 形如弁 使人加插二鳥羽” 라고 하여 使人은 두개의 조우를 삽입한다고 하였다. 한편 『北史』에는 “紫羅蘇骨”이 『周書』에는 “紫羅蘇骨과 鳥羽蘇骨”이 명기되어 있는데 鳥羽蘇骨은 소골에 조우를 삽입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舊唐書 卷二十九志 第九音樂二』에는 “高麗樂工人 紫羅帽 飾以鳥羽” 라고 하여 악공인들이 자색 띠직물로 만든 관모에 조우를 장식하였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구려에서 조우관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기마민물이나 무사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³¹⁾. 이러한 사실은 趙의 武寧王이 조우관을 무사의 표시로 삼았다는 것과 함께 그 발생의 원류가 유목기마민족, 즉 군사적, 전투적, 민족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유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²⁾. 그러나 종종 고구려 고분벽화의 악공이 조우관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사(武事)=가무(歌舞)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³³⁾. 즉 조우관이 舞樂인의 관모로도 사용되었음은 고구려인이 샤머니즘과 연관된 영조신앙(靈鳥信仰)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³⁴⁾, 새는 석기시대부터 아시아 기마민족들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티브로 조우관 착용자의 용맹함과 민첩함을 나타내었다³⁵⁾.

조우의 재료는 처음에는 천연 조우를 사용했을 것이나 장식화되고 의식화되어 금속제품을 사용했으리라 추측한다. 『翰苑 蕃夷部 高麗條』에는 “金羽以明貴賤...”이라 하여 金羽로써 귀친을 밝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金羽로 된 조우관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그림1> 토기에 새겨진 獸頭人物像
신라연구소. 경주남산릉 출토



<그림2> 조우관
한국미술전집 4. 쌍영총 기마상



<그림3> 금속제 조우관
한국미술전집 4. 개마총서벽 인물도

금속제 조우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지위상징적인 관모로 추측된다.

백제관련 고기록을 보면 『舊唐書 東夷傳 百濟條』에서 왕복에 관하여 “鳥羅冠飾以金縷” 라고 하여 왕의 관모로 金縷(金花)를 장식한 鳥羅冠을 착용하였음을 밝힌다. 『北史列傳 百濟條』에는 “그 음식과 의복이 고구려와 거의 같은데 朝拜나 제사때는 관의 양측에 翅를 加飾하고 군사의 경우에는 翅를 加飾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조배와 제사 때에는 고구려의 조우관과 같은 것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원고구려비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가 신라에게 복식을 사여한 年代는 449년으로 추정하므로 신라에서 왕이 절봉형 관모를 착용한 시기는 A.D 5세기 이후로 판단할 수 있다. 소재는 금, 금동, 은, 백화수피 등이 사용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모체와 冠飾의 소재가 달라졌으나 정확한 신분구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³⁶⁾. 그리고 신라에서 조우관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문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많은 고분출토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경주 남산릉의 토기에 새겨진 獸頭人物像 <그림1>의 모습에서 조우식을 加插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조우관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고분벽화에 나타난 서역인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무덤 안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세계적인 관습이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벽화고분이 있지만 서역인이 그려진 것은 고구려 고분에 국한되고 고구려 고분도 일부인 100

기만이 벽화를 가지고 있으며³⁷⁾, 대부분 A.D 4세기-A.D 6세기에 조성된 것이다. 서역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고구려 고분벽화로는 삼신총 力士圖, 각저총 씨름도, 안악3호분의 수박희(手搏戲)를 하는 남자, 무용총의 수박희를 하는 남자와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승려, 장천1호분의 9명의 남녀 高鼻인이 있다. 이들 벽화에 나타나는 서역인들의 외모는 코가 높고 눈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생활풍속계통의 벽화에 중앙아시아계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가 내륙아시아 유목민족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이들 민족을 매개로 중앙아시아지역과의 접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각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벽화 등을 보면 북아시아나 지중해 지역의 요소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고대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실크로드를 통한 우리나라와 서역과의 관계는 대체로 불교의 전래와 때를 같이 해서 시작되었다³⁸⁾.

다음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조우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무용총 수렵도와 쌍영총 기마상 <그림2>에서 조우관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천연조우를 가식한 듯하며 쌍영총 기마상은 鳥羽를, 무용총 수렵도에는 鳥尾를 가식하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插鳥羽冠은 유목민의 유풍이나 사면적 관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관념의 표식으로도 볼 수 있다³⁹⁾. 금속제 조우관은 개마총서벽 인물도<그림3>에 나타나는 것으로 母部는

백화수피제에 붉은 비단을 입힌 弁形帽이며 턱에 매는 끈도 비단이나 모부 위에 투각된 金具에 조우식이 삽식된 것으로 보인다.

고신라, 가야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조우관의 유례(遺例)를 보면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立飾인 鳥羽飾의 형태에 따라서 중심판에 좌우 양 날개가 부착된 조우식과 좌우 양 날개 없이 중심판만으로 구성된 조우식으로 구분된다. 중심판에 좌우 양 날개가 부착된 鳥羽飾인 경주 금관총 출토품은 母部인 弁形帽에 금관의 조우식을 삽식한 것으로 변형모의 앞면 아래에는 조우식을 꽂을 수 있는 금판이 따로 부착되어 있다.

사신도에 그려진 사신의 관모에 관하여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사신의 모습은 梁職貢圖, 법륜사의 인물상, 돈황석굴 220굴과 335굴, 장회태자묘의 벽화에 나타나 있다. 梁職貢圖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를 방문한 외국사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530년대 후반 완성되었으며 약 35개국의 사신 그림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模寫本 3벌만 남아있다. 12개국의 사신 그림이 남아서 전해지는 1벌의 模寫本에는 백제국사가 그려져 있으며 백제사정이 간략하게 쓰여져 있고, 다른 2벌의 模寫本에 고구려와 신라 사신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서 보는 고구려 사신의 관모는 자연 조우의 형태가 아니라 금속류로 만든 듯한 장식물을 단 조우관으로 특징적인 모습이다.

일본 奈良(나라)에 있는 법륜사의 아미타여래 좌상 좌대에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신으로 추정되는 남자 인물도가 발견되었으며 이 인물화는 A.D 7세기 중반의 것으로 추정한다. 가미하라(上原和) 교수는 인물도의 새 날개 모양의 머리장식은 고구려인 복식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⁴⁰⁾.

실크로드 어귀의 돈황에는 막고굴(莫高窟)이라 불리는 석굴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220굴과 335굴에 조우관을 쓴 한반도 사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석굴은 당나라 초기의 것으로 중앙아시아 미술에서 한반도인을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돈황 220굴에 그려진 인물은 머리에 두개의 깃

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있으며 686년경에 제작된 335굴 북벽에도 한반도인으로 여겨지는 사신 두 명이 있는데 이들도 모자끈을 턱밑에서 묶어 맨 조우관을 착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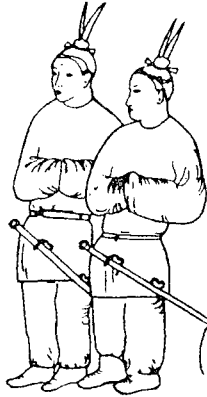
당나라 장회태자묘의 벽화에도 우리나라 사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사신의 국적에 관해서 고구려, 일본, 신라, 발해, 고구려 유민이나 발해 사신일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벽화는 A.D 7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벽화의 사절은 상투를 틀어 올린 듯 한 머리 위에 삼각형 관모를 썼으며 넓은 끈을 턱 밑에 묶어 관모를 고정시키고 있다.

양직공도의 고구려 사신이 깃털 장식에 있고 턱 밑에서 끈을 매는 형식의 조우관을 쓰고 있는 반면, 백제국사와 신라사절은 깃 장식이 없는 관모를 쓰고 있어 삼국이 기본복인 襦와 袴를 착용한 것은 비슷하지만 관모에서는 각국의 차별성이 나타나 A.D 7세기까지 독자성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압벽화의 사신 두 명은 鳥羽冠을 착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인물도에서 한반도인이라고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鳥羽冠이다.

鳥羽冠의 풍속은 삼국이 공통이었으나 고분 벽화에서 고구려인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으며, 고기록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고기록에서 본 백제의 조우관 착용용도는 조배나 제사 때로 국한되어 있어 사신복식의 용도로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신라의 경우는 예외이다.

사신들의 국적에 관해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우관의 형태이다. 아프리카시압벽화의 사신복식을 분석하면서 벽화의 사진이 아닌 模寫本 <그림4>을 참조한 연구자들은 冠의 母部가 고구려의 관모인 弁狀形 鳥羽冠이 아니라 幘頭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구려 관모에 당의 복식요소를 받아들여 창조된 관모이거나 과도기적인 형태로 추측하며 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며⁴¹⁾, 2인의 사신이 발해인이거나 고구려 유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⁴²⁾. 한편



<그림4> 벽화사절도 模寫本
考古美術 129(130), p.164



<그림5> 벽화 사절도
Masterpieces of Central Asia Samarkand. SMI-Asia, p.8

模寫圖가 아닌 벽화사진을 제시한 김미자⁴³⁾도 고구려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복두 형태의 관모로 인해서 고구려 유민이거나 발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우관의 형태가 弁形이 아닌 점도 분명하지만 복두로 보기에 도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본다. 사진 <그림5>으로 봤을 때의 형태는 模寫圖에서 묘사된 형태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특히, 모부의 형태가 복두와 같은 형태라기 보다는 날카로운 弁形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弁形의 조우관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2. 상

고분벽화에는 중국화된 복식과 우리의 전통 복식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복식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층 남자들도 포를 착용하지 않고 襦와 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襦)의 기본형은 直領左衽에 筒袖이며 臂部線에 내려올 정도로 길며 허리를 매는 腰帶가 있는 구조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의 같고 남녀가 서로 비슷하다. 신분에 따른 차이점은 소매 길이와 저고리의 깃·설·수구에 두르는 선의 문양과 색, 衣次 등에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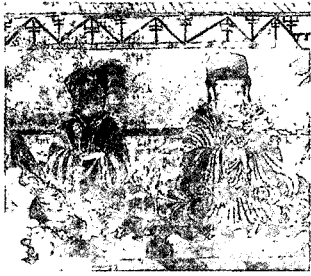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쌍영총의 주인 부부상 <그림6> 등 廣袖가 표현된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筒袖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복식의 영향으로 소매가 넓어진다. 쌍영총 기마인물도

와 무용총 시종녀 <그림7>의 상의류는 남녀동형으로 좌입통수에 둔부선길이이며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었고 옷자락·깃·수구에는 선을 두르고 있다. 한편 무용총 무용인이 착용한 장유의 속이나 쌍영총 여인상 <그림8>의 유 속에는 곡령의 내의류를 착용한 것이 보인다. 이상에서 A.D 4세기-A.D 6세기 고구려 襦의 기본형은 전개식 좌입이며 착수에 옷 길이는 둔부정도 길이이지만, 7세기의 것인 법륜사 아미타여래좌상 좌대에 그려진 인물상의 襦는 직령우입에 착수이며 포백대를 매어 앞으로 늘어뜨렸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영향으로 좌입에서 우입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기록에서 저고리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고구려관련 문헌에는 襦(舊唐書 音樂志 高句麗), 衫筒袖(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가 나온다. 백제의 기록을 보면 『北史』에는 “衣似袍”라고 하여 의가 포와 유사함을 밝히며 『梁書 列傳 諸夷와 南史 東夷』에는 複衫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大袖衫, 筒袖衫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신라에 관해서는 尉解(梁書 列傳 東夷 新羅條), 短衣(三國史記 色服 新羅條)가 나타나며 『隋書 新羅傳』과 『北史 新羅條』을 보면 신라의 의복은 대개 고구려, 백제와 같으며 服色은 素를 숭상하였다고 하였다.

사신도에 묘사된 저고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6> 廣袖
한국미술전집 4. 쌍영총 주인부부상



<그림7> 筒袖의 褙
한국미술전집 4. 무용총사중녀



<그림8> 曲領의 內衣
한국미술전집 4. 쌍영총 여인상

梁職貢圖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의 유는 소매 통이 그리 넓지는 않으며 長袖, 우입에 허벅지 길이의 긴 상의이며, 일본 범룡사의 아미타여래 좌상 좌대에 그려진 인물상은 V형의 옷깃으로 표현되어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기본의복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장희태자묘 벽화인물의 사신은 우입, 광수, 장유를 하고 있으며, 7세기 후반(686)의 돈황석굴 335호 북벽의 벽화에 있는 한국인 사절 2인은 넓은 옷깃과 廣袖의 褙가 묘사되어 있다.

양직공도의 모사본에서 백제사신의 유는 고구려사신보다 옷길이가 더 길며 깃과 옷단에 色線을 둘렀고 긴 소매에 소매통은 광수라고 할 정도로 넓지 않게 묘사되어 있으며, 신라사신은 窄袖, 장유, 우입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고분벽화에 나타난 저고리의 형태는 엉덩이 길이, 곧은 깃, 넓지 않은 통수의 소매통, 좌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고기록을 통해서 삼국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신도에서 묘사된 사신들의 저고리의 여밈과 소매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영향으로 좌입에서 우입으로, 통수에서 廣袖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라시암 벽화의 2인이 착용하고 있는 상의는 엉덩이 길이의 황색 상의인 褙이며, 여밈은 직령교입식이고 소매통은 그리 넓지 않은 통수이다. 그리고 직령교입식의 저고리 속에 둥근 목둘레선인 속옷이 보이는데, 이는 무용총 무용인

이 착용한 장유의 속이나 쌍영총 여인상의 유속에 보이는 곡령의 내의류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프리카시암궁전 벽화사신들의 상의에 관하여 관모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데 이는 團領으로 묘사된 模寫圖 <그림4>을 참조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학자들의 논리는 둥근 깃이 A.D 7세기 초 일본 고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직령의와 함께 착용되었거나, 혹은 당의 영향으로 둥근 깃의 형태인 團領의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측을 하는 견해⁴⁴⁾⁴⁵⁾⁴⁶⁾도 있으며, 조우관의 특징을 제외하고는 고구려인의 복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⁴⁷⁾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模寫圖가 아닌 사진 <그림5>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이들이 착용한 상의의 깃은 직령교입식으로 보이며, 넓지 않은 통수와 엉덩이 길이의 상의에 허리띠를 맨 형태로 봤을 때 전형적인 우리나라 상의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A.D 7세기 후반기의 신라관복은 고구려의 관복과 유사성이 많았던 중전의 관복과는 달리 당나라식으로 되었으므로 고구려식 복장을 한 이 사신들은 고구려인이라고 확인한 견해⁴⁸⁾에 동감하는 바이다.



<그림9> 細袴
한국미술전집 4. 무용총집견도



<그림10> 窮袴
한국미술전집 4. 무용총무용도



<그림11> 寬袴
한국미술전집 4. 무용총집견도

3. 하의(袴)

우리나라 바지(袴)는 細袴, 窮袴, 寬袴가 있으며 이들은 폭과 길이, 재료와 형태 및 착용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다. 바지의 원류는 피혁으로 만들고 통이 좁아 기마에 편리한 복장인 細袴이다. 이는 무용총 집견도 시종남 <그림9>과 개마총 서벽 개마도의 세 번째 인물에서 볼 수 있으며 고분벽화에서는 주로 侍者級 인물의 바지로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고 착용했다. 피혁제의 세고가 직물로 사용되면서 밀이 터지지 않게 襠을 붙인 것이 窮袴가 되며 이는 무용총 무용도의 무용인<그림10>과 주방도의 시종녀가 착용한 것으로 고분벽화에서는 바지부리를 오므려 입었다. 寬袴 즉 廣袴는 외관이 직선적이고 여유가 있는 형태로 大口袴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쌍영총 기마인물도<그림2>와 무용총 집견도의 남자상 <그림11>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귀인계급이 착용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지는 세고에서 관고로 점점 변형되었으나 평인 노동층에서는 궁고를 그대로 착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袴는 남자의 전용물은 아니며 고분벽화의 부인도에서는 고를 입은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남자처럼 고만을 입고 있었던 것 같으며 의례적일 때는 고 위에 치마인 裳을 덧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지를 지칭하는 고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관련 고기록을 보면 太口袴(北史

列傳), 大口袴(隋書東夷傳), 袴大口(舊唐書 東夷傳), 赤黃袴(舊唐書 志音樂), 窮袴(南齊書 東夷傳) 등이 있다.

백제관련 고기록에는 왕복으로 靑錦袴(舊唐書 및 唐書 東夷傳,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입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청금고는 대구고로서 상류사회에서 통용되었던 官人의 袴이다. 『梁書』에는 고를 禪(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민층의 바지이며 통이 좁고 짧은 오늘날의 잠방이 같은 것이다.

신라관련 고기록에는 禪(說文解字注), 柯半(梁書 列傳 諸夷 新羅條), 褐袴(唐書 列傳 東夷傳 新羅條), 赤袴(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聖王條)가 있으며, 가반과 같고는 張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신도의 모습에 나타난 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사신이 묘사된 것으로 A.D. 6세기 梁 職貢圖의 고구려 사신은 광고를 입고 있으며, 법륜사 아미타여래좌상 좌대에 그려진 인물상은 광고에 바지부리를 오므린 것 같고, 장희태자묘 벽화에 등장하는 사신은 넓은 선을 댄 광고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양직공도에 표현된 백제국사는 넓은 바지의 바지부리에 선을 대었으나 밀을 오므리지 않은 듯 하며, 신라사신 또한 광고이며 바지부리에 이색선을 둘렀고 밀을 오므리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삼국의 사신 모두 기본바지인 세고에서 변화된 형태인 광고를 착용하고 있으며 바지부리를 오므리거나 오므리지 않은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아프라시압벽화에 나타난 두 명의 사신은 황

색이면서 폭이 그리 넓지 않고 바지부리가 오므려져 있는 전형적인 우리의 바지(袴)를 착용하고 있다.<그림5> 고구려 고분벽화나 사신도 및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의 영향으로 기본형인 세고에서 광고로 변했다고 하였으나,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두 주인공의 바지통은 광고로 보기에는 조금 좁은 듯하다. 또한 세고는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지만 광고의 경우는 바지부리를 오므려 착용하였다고 하였는데 벽화의 사신들은 광고라고 하기에는 좁은 바지임에도 바지부리를 오므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문헌이나 고분벽화에서 본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해석을 내리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신들이 서역이라는 먼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추구했던 호복처럼 활동의 용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따라서 廣袴는 아니지만 사신이라는 신분에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바지통에 바지부리를 오므려 활동성을 추구한 것을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사신들이 착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4. 허리띠(帶)

우리나라 고대복식에서 허리띠(帶)는 중국식의 布帛으로 된 大帶와는 달리 우리문화의 원류인 스키타이계의 革帶이다. 현대에는 동물형 금속제 장식인 帶鉤가 달려있으며 대구는 현대의 끝에 달려 있어 다른 쪽 끝의 구멍 속에 꽂는 것이다.

허리띠에 관한 고구려 관련 고기록에는 銀帶(翰苑 東夷傳), 金釦革帶(唐書 東夷傳), 白韋帶(舊唐書 東夷傳), 紫羅帶(舊唐書 志音樂), 素皮帶(北史 列傳) 등이 나오며 이런 기록을 통해서 허리띠의 재료가 가죽, 은, 비단임을 알 수 있으나 고분벽화에는 대개 포백대, 승대(繩帶)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 고기록의 현대류들은 과관이나 교구를 구비한 과대류(鎡帶類)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은대나 금구현대를 통해서 증명된다. 현대는 북방 수렵민족에 원류를 둔 것으로 주로 남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자는 포백대를 사용하였으리라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도

중국의 영향으로 포백대를 매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남자의 鎡帶나 腰佩에는 사면적 요소가 있다⁴⁹⁾.

백제에서는 왕복에 素皮帶를 띠었으며 삼국 시대에는 과대에 腰佩가 있었으니 백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사신도에 묘사된 허리띠를 보면, 양직공도의 고구려 사신은 흰색의 매우 넓은 띠를 하고 있는데 이는 舊唐書나 新唐書에 나오는 白韋帶일 수도 있으며⁵⁰⁾, 법륜사의 고구려 사신과 장회태자묘의 사신, 양직공도의 백제사신은 포백대를 매고 있다.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사신들은 대구(帶鉤)가 달린 검은색 현대를 두르고 있는데 <그림5> 이는 고구려 관련 고기록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유한 허리띠임을 알 수 있다.

5. 신

上代の 신은 화(靴)와 리(履)로 구분하는데 화는 신목이 붙어 있는 것으로 기마에 편리하여 북방민족이 많이 신었으며 호복의 한 요소이다. 화는 사신총과 쌍영총 벽화에서 볼 수 있으며 리는 短鞞 즉 신목이 없는 것으로 남방족이 흔히 신었는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계통의 것이 혼용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기록에는 三國史記 色服條에는 紫皮靴, 烏



<그림12> 履
한국미술전집 4. 무용총 무용도



<그림13> 민고리 긴칼
한국미술전집 4. 삼실총 서벽 무사도

麋毳文紫皮靴 등이 있으며, 舊唐書 志音樂 高麗條에는 赤皮靴, 烏皮靴 등이 나오며 三國史記 祭祀樂 新羅條에는 烏皮靴가 있는데 이들은 화를 말한다. 履에 관한 고기록을 보면, 履, 踏, 鞋 등이 있으며 履는 신발의 총칭을 이르는 것으로 『梁書와 南史 諸夷傳 新羅條』에 나오는 洗도 履를 일컫는 명칭이다. 『北史 列傳 高句麗條』 『舊唐書 東夷傳 高麗條』 『唐書 東夷傳 百濟條』에는 黃革履, 黃韋履, 烏革履가 나오며, 烏韋履(三國史記 百濟 古爾王條), 麻履, 踏(東西 志職官 新羅 職官條)도 履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皮絲履,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東西 志色服 新羅條), 絲鞋(韻玉), 革履(後漢書 東夷 韓條)도 履이며 履의 재료는 革, 布帛, 絲, 麻, 草製, 금속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분벽화에서 靴는 쌍영총 기마인물도 <그림 2>나 무용총 시종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履는 무용총 무용도 <그림 12> 등에 묘사되어 있다. 백제의 경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양직공도의 백제국사가 검은색 화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장희태자묘의 사신은 革履를 신고 있다.

아프라시압벽화의 사신들은 발끝이 올라간 靴를 신고 있다 <그림 5>. 靴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며 삼국시대에는 靴와 履가 병용되었다. 그러나 벽화의 사신들은 서역이라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신목이 낮은 履보다는 신목이 높은 靴가 사신들의 상황에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6. 검

고구려는 甲冑 등 상당한 武器가 발달하였으며⁵¹⁾, 칼은 고구려의 근거리 무기 가운데서 창 다음으로 중요하다. 고구려의 칼은 칼날, 칼자루, 칼집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구려칼의 기본은 고리자루긴칼 즉 環頭大刀이며 외날칼이 주류를 이루고, 백제, 신라, 가야의 고리자루긴칼에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칼의 분류기준은 자루 끝에 고리가 있는지 여부와 한 자(35센티)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에 따라서 구분한다.

고구려 칼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고

리 안에 무늬가 없는 민고리자루칼이 많으며, 고리 안에 3잎 무늬가 있거나 칼자루의 뒤끝 부분에 복숭아형 큰 구멍이 있다. 이는 고리 안에 용이나 봉황무늬를 화려하게 장식한 백제, 신라, 가야의 칼과는 구분되는 현상이다⁵²⁾.

고구려의 민고리긴칼은 고분벽화에서도 볼 수 있으며 벽화에 묘사된 칼은 자루끝에 있는 고리와 날부분만 보이는데 삼실총 서벽 무사도 <그림 13>에서 볼 수 있으며 감신총의 행렬도에 나타나는 무인들도 민고리긴칼(素環頭大刀)을 걸치고 투구 꼭대기에 새 깃을 꽂았다⁵³⁾. 그 외, 고구려의 고리자루긴칼은 수산리벽화무덤, 안악 2호분, 개마총, 통구 12호분,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 나타난다.

아프라시압궁전 벽화의 2인은 긴 環頭大刀 즉 고리자루긴칼을 길게 내려뜨리고 있어 <그림 5> 무관으로 짐작된다. 둥근 고리는 사신의 칼자루에 끈을 맺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둥근 고리가 있는 큰 칼은 고구려칼의 기본 형태이다. 한편, 이 佩刀의 특징은 고구려인들이 패용하던 칼꽂등이(鐔)가 비교적 크며 칼집에 M자형 장식에 있는 특징과도 일치한다⁵⁴⁾. 따라서 벽화 사신들이 차고 있는 환두대도가 우리나라의 것은 분명한 듯 하나, 칼고리 안의 문양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신들의 국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분벽화에 묘사된 민고리긴칼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본다면 사신들이 고구려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IV. 결론

이상에서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궁전 벽화의 12인의 사신행렬도에 묘사된 2인의 사신복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두 명의 사신은 새 깃털을 꽂은 관모, 황색의 직령교입에 통수이며 둔부선 길이인 상의, 통이 넓지 않은 바지, 帶鉤가 달린 검은색 혁대, 끝이 올라간 신목이 붙은 靴, 둥근 고리가 달린 큰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복식항목과 형태는 고분벽화나 출토품, 문헌, 사신도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본복이며 특히, 襦袴로 분리된 의복형태와 조우관으로 추정되는 관모를 통해서 두 명의 사신이 한반도인임을 알 수 있다.

아프라시압 벽화의 模寫圖에는 襦의 깃이 둥근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관모의 모부가 전형적인 弁形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어 복식에 대한 해석과 사신의 국적에 관한 추정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였다. 그러나 模寫圖가 아닌 벽화사진을 면밀히 관찰하면 模寫圖에서 표현된 것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관모의 경우, 새 깃털을 꽂은 모자의 모부는 장희태자묘의 사신이 착용하고 있는 弁形 조우관과는 약간 다른 듯 하지만, 복두라기보다 부드러운 弁形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복두에 鳥羽를 꽂았다는 기록은 없었으며, 插鳥羽의 풍습은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遺俗으로서 鳥羽冠은 고구려 고분벽화나 출토품, 문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고구려적인 색채가 강한 관모라고 볼 수 있다.

襦袴분리형은 우리나라 의복의 기본구조이며 筒袖의 襦에 廣袴인 의복형태는 삼국이 유사하다. 벽화에 묘사된 襦의 깃은 곧은 깃으로 보이며, 통수에 엉덩이를 덮는 긴 길이로 우리고유의 저고리와 동일한 형태이다. 그리고 직령교임식의 유 속에 둥근 목둘레선의 내의류가 보이는데 이는 고분벽화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의인 袴는 통이 넓지 않으며 바지부리를 오므린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신라는 648년에 당의 服制를 채택하였으므로 공무복인 사신복은 당의 영향으로 광수의 유와 광고에 가까운 모습일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이런 의복형태를 삼국중 가장 먼저 수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바지통이 넓지 않은 바지형태를 근거로 했을 때, 벽화의 주인공들이 신라사신일 가능성 보다 고구려 사신일 가능성이 좀 더 우선하지 않나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넓지 않은 바지통에 바지부리를 오므린 형태는 사신이 신있던 끝이 올라간 靴와 함께 서역까지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활동성을 고려한 결과이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그 외, 帶鉤가 달린 형태와 둥근 고리 큰 칼은 고분벽화와 출토품 및 문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環頭大刀는 사신이 무관임을 상징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둥근 고리 큰 칼의 유래가 고구려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벽화자료 외 고구려 고분벽화인 삼실총 역사도, 각저총 씨름도, 안악3호분과 무용총의 수박희를 하는 남자, 장천1호분에는 코가 높고 눈이 큰 서역계 인물들을 볼 수 있어 삼국과 서역간 교류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프라시압 벽화의 제작년대로 추정되는 A.D 7세기 중엽, 신라와 백제가 서역과 교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고구려가 동북아시아나 돌궐을 비롯한 서역제국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였다는 것은史料에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당나라 초기에 고구려는 위협적인 당의 침공 앞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돌궐을 비롯한 서역제국과 제휴를 시도하는 등 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사신을 그 곳으로 파견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2인의 사신복식이 고구려의 것과 유사하며 고분출토품이나 고분벽화, 문헌 등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2인을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신의 국적을 추정하는 논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역사적 정황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의류학에서 진행되었던 타 연구와 차별화 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며, 추후 타 연구자들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삼국시대의 복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출토품 및 사신도의 자료를 시각자료로 제시하지 않고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에만 한정하였으며, 명확한 사료가 없어 추정으로 그쳐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서역인의 외모와 복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삼국과 서역간 교류의 근거를 재확인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원룡 (1976). *한국문화의 기원*. 탐구당, p.58.
- 2)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27일.
- 3) 노태순 (1988).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23, p.236.
-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우즈베키스탄 편람*, pp.38-50.
- 5) Ibid., p.39.
- 6) Arapov, A. V. (2004). *Masterpieces of Central Asia Samarkand*. SMI-Asia, p.8.
- 7) Ibid.
- 8) Ibid.
- 9) Alibaum, L. I. (1975). *Zivopisi Afrabsia. Tashikent*, pp.3-4.을 인용한; 노태순 (1988). *Op. cit.*, p.244.
- 10) Ibid., p.236.
- 11) 穴澤和光, 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都城址出土の壁畫わ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을 인용한; 무함마드 간수 (1992). *신라 서역교류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p.438.
- 12) Ibid., p.442.
- 13) 고병익 (1984). *동아시아 전통과 근대사*. 삼지원, pp.79-80.
- 14) 김용만 (1998). *고구려의 발견. 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 바다출판사, pp.434-435.
- 15) 김원룡 (1976).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의 사절도. *考古美術* 129(130), pp.162-167.
- 16) 한겨레신문 (2006). *Op. cit.*
- 17) 김원룡 (1976). *Op. cit.*, p.12.
- 18) 노태순 (1984).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방학지* 44, pp.1-57.
- 19) 김정배 (2005). *고구려 역사문제 연구논문제집*. 고구려 연구재단, pp.176-177.
- 20)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1999). *문답으로 읽은 한국고대사 산책*. 역사비평, pp.120-132.
- 21) 노태순 (1988). *Op. cit.*, pp.240-241.
- 22) 정수일 (2005). *한국 속의 세계* 上. 창비, p.121.
- 23) Chavannes, E.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es]*. Occidentaux, pp.246-7.을 인용한; 노태순 (1988). *Op. cit.*, pp.241-243.
- 24) Ibid.
- 25) 李丙燾 (1985).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p.428.
- 26) 노태순 (1988). *Op. cit.*, pp.244-245.
- 27) 김용만 (1998). *Op. cit.*, pp.434-435.
- 28) 정수일 (1992). *Op. cit.*, p.442.
- 29)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1999). *Op. cit.*, p.212.
- 30) KBS HD 역사스페셜 원작, 표정훈 해저 (2005). *고구려, 천하의 중심을 선포하다*. 효형출판사, pp.278-280.
- 31) 이용범 (1956). 고구려인의 조우삼판에 대하여. *동국사학* 4, p.23.
- 32) 김문자 (1984). 고대한국복식의 원류에 관한 연구 -스키타이계 복식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5.
- 33) 정완진 (1994). 고구려 관모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6.
- 34)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 역사, p.108.
- 35) 穴澤和光, 馬目順一 (1976). *Op. cit.*을 인용한; 정찬주, 이윤정 (2004).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가 상고시대 우리나라 관모와 장신구에 미친 영향. *한복문화학회* 7(1), p.21.
- 36) 권준희 (2003). 고구려와 신라의 절풍형 관모. *한복문화학회* 6(3), pp.79-82.
- 37) 김원룡 (1960).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한국고대미술에 대한 중국의 영향-. *진단학보* 21, p.45.
- 38) 손경자 (1990).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 -복식의 양식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14, pp.21-39.
- 39) 김동욱 (1979). *증보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p.8.
- 40) 조선일보. 1992년. 10월 31일.
- 41) 김희정 (1996). 우리나라 사신복에 관한 연구-통일신라시대까지. *한국복식학회* 27, pp.112-114.
- 42) 양경애 (1997). 삼국시대 피지배층복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3-79.
- 43) 김미자 (1993). 우리나라 삼국시대의복과 일본의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pp.41-42.
- 44) 김희정 (1996). Op. cit. p.114.
- 45) 김원룡 (1976). Op. cit., p.165.
- 46) 양경애 (1997). Op. cit., p.79.
- 47) 김소현 (1993). 당시대의 호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5.
- 48)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p.75.
- 49) 김동욱 (1979). Op. cit., pp.4-21.
- 50) 양경애 (1997). Op. cit., p.76.
- 51) 김동욱 (1979). Op. cit., p.4.
- 52) 리광희 (2005). Op. cit., pp.72-85.
- 53)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연구*. 사계절출판사, pp.52-89.
- 54) 무함마드 칸수 (1992). Op. cit., p.439.